

프랑스어의 *Il y a une place de libre* 유형 구문 연구 : [de + 형용사(구)] 문요소를 지닌 구문들에 대한 통합적 분석*,**

김 종 명 (서울대학교)

• 목 차 •

- I. 서론 : 연구의 배경
- II. 연구 대상 및 연구 목표의 한정
- III.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 IV. (C) 유형 구문 분석
- V. (C) 유형 구문 <de + AP>의 분석
- VI. (A), (B) 유형 구문의 분석
- VII. 결론

I. 서론 : 연구의 배경

프랑스어 단어 *de*는 여러 어휘범주에 속하면서 다양한 문법기능을 수행한다. *de*는 의미가 빈곤한 문법형태소이지만 수행기능에 따라, 수렴성을 찾기 어려울 만큼 변화무쌍하게 의미해석이 바뀐다. *de*는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6143).

** 이 논문에 대해 유익한 지적을 해 준 세 심사자에게 특히 내용과 형식에 걸쳐 꼼꼼하게 많은 지적을 해 준 그중 한 심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정체가 무엇이기에 기능적으로 의미적으로 복잡다기한 양상을 보이는가? 그 답은 여전히 프랑수어학의 과제로 남아 있다(Anglebert 1992: 1).

이 연구는 연구 주제를 제시하기에 앞서 *de*의 다양하고 문제적인 기능들을 소개한다. 왜냐하면 이는 이 연구의 배경이자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de*는 우선 전치사, 보문자 *complémenteur*¹⁾, 한정사 *déterminant*의 세 범주에 속하면서 각 범주의 고유 기능을 수행한다.

(1) 전치사 *de*

- a. Je viens de Paris.
- b. Il parle de Marie.
- c. Je lis la préface de son livre.

(2) 보문자 *de*

- a. Je lui demande de parler plus fort.
- b. Il est honteux de mentir.

(3) 관사 *de*

- a. Je ne mange pas de viande.
- b. Je bois (beaucoup d'eau + de cette eau + de l'eau).

*de*는 (1)에 예시한 전치사로 쓰일 때, 용법과 의미해석이 아주 다양해서²⁾ 원형의미나 다의성을 원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³⁾ 또 *de*

1) *de*의 보문자 기능을 처음 제시한 것은 Huot (1981)이다. 그렇지만 Kayne (1981)은 이 *de*가 굴절소 INFL라는 분석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두 분석 중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문제의 *de*가 보문자이든 굴절소이든 간에 *de*의 다른 기능들과 범주적으로 구별되는 기능을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2) 예를 들어, 구기현(2011: 256-332)은 전치사 *de*가 30개 의미를 지닌 다의어라고 제시한다.

3) Kupferman (1996: 3).

는 (2)처럼 내포문을 인도하는 보문자 기능을 하며, (3)처럼 단독으로 또는 다른 단어와 결합해 한정사로 기능한다. 한정사 용법에서도 *de*는 어떤 원리에 의해 선행 부사나 후행 한정사와 결합하여 한정사로 기능하는지, 왜 부정문에서는 단독으로 한정사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열려 있다.

게다가 *de*가 이 세 범주에 속하여 발휘하는 기능 중에는 특별히 설명하기 힘든 용법들이 존재한다.

(4) 전치사 *de*

- a. Il l'a qualifié (d'inutile + de crime).
- b. Il trouve ça d'un mauvais.
- c. Et de deux et de trois et de quatre ...
- d. Il a plus de 20 ans.

(5) 보문자 *de*

Aussitôt les ennemis de s'enfuir.

(4)의 용법들은 모두 전치사 *de*의 용법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4a)의 *de*는 왜 전치사 보어로 형용사도 분포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4b)의 *d'un mauvais*는 “*très mauvais*”로 해석되는데, *de*가 어떤 기능을 하기에 이 전치사구가 그런 의미를 갖는지도 설명하기 어렵다. (4c)의 *de*는 수량명사에 강조적 의미를 더해 준다. 여기서도 *de*가 어떤 기능을 하기에 양태적 의미를 부여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4d)의 *de*는 비교대상(= 20 ans)을 인도하는 기능을 한다. 이 기능은 프랑스어 *que*, 영어 *than, as*처럼 절과 명사구를 인도하는 보문자/전치사, 한국어 *보다*처럼 명사구를 인도하는 후치사가 담당한다. 따라서 이 *de*는 비교대상을 인도하는 전치사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을 인도하는 다른 기능어휘는 (6)처럼 양화사를 수반한 다양한 어휘를 수식함에 반해, 이 *de*는 (7)처럼 피수식 문요소로 양

화사만 선택한다. 비교대상을 인도하는 전치사 *de*의 이런 제한된 기능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5)의 보문자 *de*가 사용된 구문은 왜 종속절이 아닌 단문의 독립절임에도 부정법문으로 나타나 보문자 *de*가 사용되었는지도 역시 설명하기 어렵다.

- (6) a. (plus + plus de pain + plus belle + plus vite) que
- b. (more + more bread + more beautiful + more carefully) than ...
- c. (as much + as much bread + as beautiful + as carefully) as ...

- (7) (plus + *plus de pain + *plus belle + *plus vite) de ...

마지막으로 *de*는 상기한 모든 용법에 더하여 아래 (8)과 같이 *de*의 범주적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용법을 지닌다.

- (8) a. Il y a une place de libre.
- b. Donnez-moi quelque chose de bon.

(8)의 *de* 뒤에는 형용사(구)만 분포한다. 이는 어떤 어휘범주의 전형적 분포특성도 아니다. 따라서 이 *de*는 범주적 성격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de*는 다채롭고 문제적인 용법들을 지니고 있어서 그 정체를 규명하는 것이 프랑스어학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연구는 *de*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위 (8)에 제시한 것과 같이, 형용사(구)가 후행하는 용법에 쓰인 *de*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연구 대상 및 연구 목표의 한정

우선 이 연구의 대상을 분명히 한정하기 위해 *de* 뒤에 형용사(구)만 분포하는 모든 경우를 나열한다. 이를 위해, 편의상 *de*와 후행 형용사(구)가 구성하는 문요소를 <de + AP>⁴⁾라 지칭한다. <de + AP>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어휘와 공기하여 구문 상에 출현하거나 특정 구문 유형에 나타난다.

- (1) 의문대명사와 공기하여 출현
 - a. Qui connais-tu de blessé?
 - b. Tu fais quoi d'intéressant?
- (2) 부정대명사와 공기하여 출현
 - a. Quelqu'un d'inconnu te demande.
 - b. Il n'a dit rien de nouveau.
- (3) 지시대명사와 공기하여 출현
 - a. Je connais celui-ci d'intelligent.
 - b. Il m'a dit ceci d'intéressant.
- (4) 소유대명사와 공기하여 출현
 - a. J'ai lu le tien d'intéressant.
 - b. Il a mangé le vôtre de délicieux.
- (5) 제한 *restriction* 구문에 출현
 - a. Je n'ai lu que le livre d'intéressant.
 - b. Le seul garçon que j'aie de sage est Paul.

4) <de + AP>의 AP (Adjectival Phrase)는 형용사, 과거분사, 형용사구를 포함한다. 실제 용례에서는 AP 위치에 형용사나 과거분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다음 예와 같이, 형용사구도 분포한다.

(예) Il n'y a personne de vraiment heureux ici-bas. (Grevisse 1980: 649)

- (6) 분열문에 출현
 - a. C'est le livre que j'ai lu d'amusant.
 - b. Ce sont les robes que j'ai vues de vertes.

- (7) 중성대명사 *en*과 수량사로 이루어진 구문에 출현
 - a. J'en ai lu deux de passionnants.
 - b. Il n'y en a aucun d'intelligent.

- (8) 한정된 동사 부류의 구문에 출현
 - a. Il y a une place de libre.
 - b. J'ai un enfant de malade.

위에 나열한 <de + AP> 출현의 각 경우를 간략히 설명한다. 우선 (1)처럼 의문대명사는 그것과 서술(수식)관계⁵⁾를 맺는 <de + AP>가 해당 구문에 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 (2)의 부정(不定)대명사도 그것과 서술(수식)관계를 맺는 <de + AP>를 지닐 수 있다. 그리고 (3-4)와 같이 <de + AP>는 지시대명사나 소유대명사와도 서술(수식)관계를 맺으면서 나타난다.

한편 (5)는 *ne ... que* 또는 *seul*가 구문의 한 요소에 제한을 가하는 구문이다. 이렇게 제한을 받는 문요소는 그것과 서술(수식)관계를 맺는 <de + AP>를 지닐 수 있다. 또 (6)처럼 분열문의 초점 위치의 문요소도 그것과 서술(수식)관계를 맺는 <de + AP>를 지닐 수 있다.

(7)은 명사를 대리하는 중성대명사 *en*과 *en*을 한정하는 수량표현이 함께 나타난 구문이다. 이런 구문에서 수량표현은 그것과 서술(수식)관계인 <de + AP>를 지닐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de +

5) <de + AP>가 선행 문요소와 맺는 관계가 서술관계인지, 수식관계인지는 이 연구가 밝혀야 하는 바이기에 여기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서술(수식)관계라고 표현한다.

AP>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en*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7)의 *en* 대신 명사가 출현한 아래 (7') 구문에는 <de + AP>가 나타나지 않는다. (Brunot 1936: 636)

- (7') a. *J'ai lu deux livres de passionnants.
 b. *Il n'y a aucun garçon d'intelligent.

마지막으로 (8)은 *y a, avoir, trouver* 등 극히 한정된 동사 부류의 구문이다. 이 동사 부류의 구문에는 직접목적어(또는 주어 속사)와 서술(수식)관계를 맺는 <de + AP>가 나타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de + AP>는 특정 어휘와 공기하거나, 특정 형식, 특정 동사의 구문에 분포한다. 그러므로 <de + AP> 출현의 다양한 경우는 다음 세 유형으로 크게 묶일 수 있다. (Azoulay-Vicent 1985; den Dikken & al. 2004)

첫 번째 유형은 아래 (A) 유형으로서, 구문 형태나 서술어와 상관 없이 <de + AP>가 특정 어휘와 한 구문 안에 공기하는 경우이다. 이 특정 어휘에는 의문/부정/지시/소유대명사가 속한다.

(A) 유형: 의문대명사/부정대명사/지시대명사/소유대명사와 공기

- (9) a. Qui connais-tu d'intelligent?
 b. Quelqu'un d'inconnu te demande.
 c. Je connais celui-ci d'intelligent.
 d. Il a mangé le vôtre de délicieux.

두 번째 경우는 아래 (B) 유형으로서 *ne ... que*나 *seul* 등에 의한 제한, 분열문 또는 중성대명사 *en* 대리 등의 방식으로 구문의 한 논항이나 논항의 일부가 초점을 받는 구문들이다.⁶⁾ 아래 (10)의 밑줄

친 문요소는 모두 이들 중 한 방식으로 초점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구문은 초점을 받는 논항과 서술(수식)관계를 맺는 <de + AP>를 지닐 수 있다.

(B) 유형 : 초점 구문

- (10) a. Je n'ai lu que le livre d'intéressant.
b. Le seul garçon que j'aie de sage est Paul.
c. C'est le livre que j'ai lu d'intéressant.
d. J'en ai lu deux de passionnants.

세 번째 경우는 (C) 유형으로서 *y avoir, voilà, avoir, trouver* 등 일단의 동사들의 구문에 나타나는 <de + AP>이다. 이 구문들은 직접 목적어(또는 주어 속사)와 서술(수식)관계를 맺는 <de + AP>를 지닐 수 있다.

(C) 유형 : 한정된 동사 부류의 구문

- (11) a. Il y a une place de libre.
b. J'ai un enfant de malade.
c. Voilà encore deux soldats de tués.
d. J'ai trouvé deux pizzas de chaudes.

그런데 이 모든 <de + AP>에 대해 우선 언급해야 할 사실은 이 문요소가 항상 대조적 주제 *topique contrastif*의 해석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Lagae 1994: 120-129; den Dikken & al. 2004: 6) <de + AP>는 위 세 유형 중 어느 유형으로 나타나든, 항상 대조적 주

6) 수량명사구에서 명사가 *en*으로 대리되고 남은 수량사는 해당 구문에서 초점을 받는다. Azoulay-Vicent (1985: 229)

제의 정보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아래 (12b)의 (C) 유형 구문은 (12a)의 구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 차이를 보인다.

- (12) a. *Il y a une place libre.* (빈자리가 하나 있다.)
 b. *Il y a une place **de** libre.* (빈자리(로)는 한 자리가 있다.)

<de + AP>에 대해 두 번째로 언급할 사실은 위 세 유형 중 (C) 유형은 (A-B) 유형과 달리 구문에 많은 제약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제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A-B) 유형은 구문 형태나 서술어에 상관없이 해당 구문에 의문/부정/지시/소유대명사나 초점을 받는 논항이 있으면 이것들과 공기할 수 있다. 반면에 (C) 유형이 분포하는 동사는 Grevisse (1980: 1154)에 의하면 존재동사, 소유동사, 지각동사 등에 속하는 일부 동사로 제한된다.

둘째, (A-B) 유형의 <de + AP>에는 모든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들이 분포하지만⁷⁾ (C) 유형에는 서술적 용법 형용사 중 항구적 속성 표현의 형용사 *individual-level adjective*가 아닌 일시적 상태의 형용사 *stage-level adjective*만 분포할 수 있다.⁸⁾ (Azoulay-Vicent 1985: 27; Kupferman 1980: 822-826) 그래서 (13)에서 보는 것처럼 (C) 유형에는 항구적 속성의 형용사 *intelligent*은 못 오고, 일시적 상태의 형용사 *malade*는 분포한다. 그러나 (A-B) 유형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7) <de + AP>에 분포하는 형용사는 속사로 쓰이는 형용사로 한정된다. 따라서 부가어로만 쓰이는 형용사는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de + AP>에 분포할 수 없다. Azoulay-Vicent (1985: 27)

(예) a. *J'en ai vu un de bon.* b. **J'en ai vu un de policier.*

Milner (1978)는 <de + AP>의 이런 형용사 분포제약을 <de + AP>가 일종의 관계절이라는 분석의 근거로 삼았다.

8) *stage-level predicate*와 *individual-level predicate*의 정의는 Kratzer (1989)에 의거한다.

- (13) a. Il a parlé de quelqu'un (d'intelligent + de malade).
: (A) 유형
- b. Qui (d'intelligent + de malade) a participé à la réunion?
: (A) 유형
- c. J'en ai critiqué deux (d'intelligents + de malades).
: (B) 유형
- d. Elle ne critique qu'une personne (d'intelligente + de malade).
: (B) 유형
- e. Il y a deux enfants (*d'intelligents + de malades).
: (C) 유형
- f. J'ai trouvé trois soldats (*d'intelligents + de malades).
: (C) 유형

<de + AP>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세 유형 중 쟁점이 많은 (C) 유형 <de + AP>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후 이 분석결과가 (A-B) 유형 <de + AP> 분석에도 유효하게 적용됨을 보인다. 최종적으로 세 유형 <de + AP>에 대한 일원적 분석 및 세 유형이 각각 나타나는 구문의 통사구조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Chomsky (1981, 1986)의 지배결속이론에 입각한다.

III.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de + AP>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기 위해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본다. 세 유형의 <de + AP>는 여러 전통문법서에서 기술되었다. Blinkenberg (1950), Brunot (1936), Clédat (1901), Damourette & Pichon (1952), Grevisse (1980), G. & R. Le Bidois (1967), Martinon (1927), Wagner & Pinchon (1962)이 그것들이다.

그렇지만 1980년대부터 이에 대해, 현대통사론 이론에 입각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Azoulay-Vicent (1985), Englebert (1992), den Dikken & al. (2004), Furukawa (1989, 1996), Hulk (1996), Hulk & Verheugd (1994), Huot (1981), Kayne (1994), Kupferman (1980, 1994a, 1994b, 1996), Lagae (1994, 1995, 1998, 2008), Milner (1976, 1978), Peeters (1998) 등이 그것들이다.

이 선행연구들에 대한 소개에 앞서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1980년대 이후의 본격적 연구들은 대부분 세 유형 <de + AP>를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파악하고 이 문요소가 어떤 통사적 속성을 지니기에 세 유형과 관련된 환경에 공히 나타나는가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그렇지만 이 절의 뒤 부분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특히 (C) 유형 구문의 통사-의미 특성 중에는 여전히 잘 설명되지 않거나 체계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C) 유형 구문에 대해서 선행연구의 불완전한 점을 보완한 새로운 분석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세 유형의 모든 통사-의미 특성을 일원적으로 설명하는 통합적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선행연구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어떤 미비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3.1에서는 전통문법의 연구를, 3.2에서는 현대 통사이론에 입각한 연구들을 다룬다.

3.1 전통문법의 논의와 문제점

이 연구가 검토한 전통문법서는 Blinkenberg (1950), Brunot (1936), Damourette & Pichon (1950), Grevisse (1980), G. & R. Le Bidois (1967), Wagner & Pinchon (1962)이다.

Grevisse (1980)부터 하나씩 살펴본다. Grevisse (1980: 649-658, 1154-1155)는 (A)와 (C) 유형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A) 유형에 관해서는 부정대명사와 <de + AP>가 공기한다는 사실만을 예문들과 함께 제시하였다. 한편 (C) 유형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기술을 제시하였는데, (C) 유형 구문은 *avoir, être, il y a, posséder, rester, voir, rencontrer, connaître, remarquer, trouver, se trouver, voilà, voici* 등 상태, 소유, 지각,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구문이 해당되며 <de + AP>는 일반적으로 이 구문에 수량명사구가 분포할 때 이 명사구 뒤에 나타난다고 언급한다.⁹⁾

또 (C) 유형 구문에서 <de + AP>는 *de* 없이 형용사(구)가 같은 위치에 나타난 경우와 비교할 때 형용사(구)를 선행명사와 분리시키고 부각시키는 효과를 주며 선행명사의 속사로 기능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즉 아래 (1a)의 형용사 *libre*는 선행명사의 부가어 기능을 하지만 (1b)의 *libre*는 *de*로 인해 선행명사에서 이격되고 부각되며 선행명사의 속사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 (1) a. Il y a une place libre.
 b. Il y a une place de libre.

Blinkenberg (1950: 116)도 (C) 유형에서 <de + AP>가 선행명사구에 대해 술어 기능을 한다고 봄으로써 이 둘 간의 관계를 Grevisse (1980)와 동일하게 파악하였다.

그는 특별히 (C) 유형 <de + AP>의 통시적 형성 과정을 제시했다. 그는 위 (1b)의 (C) 유형 구문에서 *une place de libre*가 최초에는 *une place de libres* 형태를 취하였고 그때 *de*는 “~ 중에서” 의미를

9) 그렇지만 다음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유형 구문에 수량명사구가 아닌 명사구가 나타난 경우에도 <de + AP>가 분포할 수 있다. Peeters (1998: 135, 141)
 (예) a. Voilà mon crayon de cassé. b. Il y a ma place de libre.

지녀 *une place de libres*가 “빈자리들 중 한 자리” 정도의 해석을 부여받았었으나¹⁰⁾ 이후 통시적 변화가 일어나 <de + AP>의 형용사가 오늘날처럼 선행명사에 대해 술어 기능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선행명사와 성수 일치룰 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한편 Brunot (1936: 636)는 (B) 유형의 *en* 대리사와 수량 표현이 있는 구문에 <de + AP>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 구문에서 *en*의 존재가 <de + AP> 출현의 필수조건임을 지적한다. 즉 아래 (2a)의 *en*과 수량 표현이 있는 구문에는 <de + AP>가 나타나지만 (2b)처럼 이 구문에서 *en*이 빠지면 <de + AP>의 *de*는 없어진다고 했다. 또 그는 (C) 유형의 예문 (2c)를 제시하면서 (C) 유형 구문에서 <de + AP>와 관련을 맺는 명사구는 일반적으로 수량명사구이지만 (2c)처럼 그렇지 않은 같은 경우도 존재하며 이는 수량명사구 관련 용법의 유추적 확장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 (2) a. Il y en eut cent de tués.
 b. Il y eut cent tués.
 c. Le temps qu'ils ont de libre.

한편 G. & R. Le Bidois (1967: 28)는 <de + AP>의 *de*는 전치사이고 <de + AP>는 선행명사구에 대해 속사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3)의 (A-C) 유형 구문을 예로 제시하면서 (3)의 <de + AP>는 (4)의 <de + NP/AP>¹¹⁾와 같은 성격의 문요소라고 언급했다.

10) 실제로 Blinkenberg (1950)는 *de*가 최초에는 부분적 가치 *valeur partitive*를 지녔었다고만 언급한다. 본문의 내용은 그가 말하는 부분적 가치를 이 연구가 이해한 바대로 풀어 제시한 것이다.
 11) <de + NP/AP>는 *de* 뒤에 명사구 또는 형용사가 오는 문요소를 지칭한다. 이 문요소에 대해서는 뒤 부분에서 다룬다.

- (3) a. Voilà des mouches de pris.
b. C'était déjà un bon pas de pris.
c. Quelqu'un de grand va naître.
- (4) a. Si j'étais de vous, j'aurais déjà deviné.
b. Vous me le traitez à moi d'indifférent.
c. L'on dirait d'un malade.

Wagner & Pinchon (1962: 456)도 G. & R. Le Bidois (196)와 유사한 분석을 제시한다. 이들도 <de + AP>는 속사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아래 (5)의 (A) 유형 구문을 예로 들면서 (5)의 <de + AP>를 (6)의 <de + NP/AP>와 같은 성질의 문요소라고 했다.

- (5) a. Ce qu'il y a de vrai
b. Il reste cela de vrai que
c. Quelque chose de bon
- (6) a. Traiter quelqu'un d'incapable
b. Et de connaisseurs en art, il n'y a que ceux-là.

한편 Damourette & Pichon (1952)은 위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C) 유형 구문에서 <de + AP>의 형용사는 선행명사구에 대해 부가어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¹²⁾

이상에서 <de + AP>가 전통문법서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살펴 보았다. 검토 결과, 전통문법의 기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난다.

첫째, 전통문법은 <de + AP>가 나타나는 분포환경을 체계적으로

12) Damourette & Pichon (1952) : "... de a pour effet sémantique de donner à l'adjectif une valeur épithétique ...".

기술하지 않았다. 어느 전통문법서도 앞서 이 연구가 제시한 (A), (B), (C) 유형의 <de + AP> 분포환경을 모두 지적하지 않았다.

둘째, <de + AP>가 나타나는 분포환경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A), (B), (C)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렇지만 어느 전통문법서도 <de + AP>를 분포환경에 따라 유형구분을 하지 않았다.

셋째, 전통문법은 대부분 <de + AP>가 속사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어느 문법서도 이런 판단을 정당화하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전통문법의 <de + AP>에 대한 기술과 설명은 단편적으로는 유효한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언어학 분석으로서 완결성을 지니지 않는다.

3.2 현대언어학의 통사이론에 입각한 선행연구들과 이들의 문제점

이제 1980년 이후 현대 통사이론에 입각하여 <de + AP>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이 연구가 참조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Azoulay-Vicent (1985), den Dikken & al. (2004), Englebort (1992), Furukawa (1989, 1996), Hulk (1996), Hulk & Verheugd (1994), Huot (1981), Kayne (1994), Kupferman (1980, 1994a, 1994b, 1996), Lagae (1994, 1995, 1998, 2008), Milner (1976, 1978), Peeters (1998).

이 선행연구들은 (C) 유형 구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① Azoulay-Vicente (1985), Kupferman (1980), Peeters (1998)는 (C) 유형 구문이 다음 (1) 구조를 이루어, <de + AP>가 선행명사구와는 독립된 문장성분인 전치사구를 구성한다고 분석한다.¹³⁾

13) 이하에서 각 선행연구가 분석한 (C) 유형 구문구조는 (C) 유형 구문 *Il y a une*

(1) Il y a [NP une place] [PP de libre].

② Huot (1981), Milner (1978)는 (C) 유형 구문에서 <de + AP>와 선행명사구가 하나의 명사구를 구성하며 <de + AP>는 선행명사구를 수식하는 (축소된 형태의) 관계절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들은 *de*가 보문소이고 AP는 절 성분이라고 보았다.

(2) Il y a [NP [NP une place] [CP de libre]].

③ Furukawa (1989; 1996)는 (C) 유형 구문에서 선행명사구는 <de + AP>와 소절을 구성함과 동시에 주절 동사의 논항 역할을 한다고 분석한다. 즉 아래 (3)의 (C) 유형 구문은 *Il y a une place*라는 1차 주술관계와 *une place*가 주어이고 *de libre*가 술어인 2차 주술관계로 이루어진 구문이다.

(3) [s₁ Il y a <s₂ une place s₁] de libre s₂>.

④ Hulk (1996), Kupferman (1994a; 1994b; 1996)은 (C) 유형 구문에서 <de + AP>와 선행명사구는 양화사구(QP)의 성격을 지닌 소절을 이룬다고 분석한다. 즉 이 연구들은 (4)에서 *une place*와 *de libre*는 주술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절을 구성하지만 이 절은 양화사구의 성격을 띠는다고 보았다.

(4) Il y a [QP une place de libre].

⑤ den Dikken & al. (2004), Kayne (1994), Lagae (1994)는 (C) 유형 구문에서 <de + AP>와 선행명사구는 명사구 성격의 소절을 구성한다고 분석한다. 이 연구들은 (5)에서 *une place*와 *de libre*는 주

*place de libre*를 이용하여 제시한다.

술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절을 구성하며 이 절은 명사구 성격을 띤다고 보았다.

(5) *Il y a* [_{NP} *une place de libre*].

그런데 이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C) 유형 구문 분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1) (C) 유형 구문의 동사제약에 대한 설명력 부재

(C) 유형 구문의 동사는, (6)과 같이 존재동사(*être, rester, se trouver, il y avoir, voilà, voici*), 소유동사(*avoir, posséder*), 지각/인지동사(*voir, rencontrer, connaître, trouver, remarquer*)로 한정된다. 그 외 동사들은, (7)이 예시하는 것처럼, (C) 유형 구문을 형성할 수 없다.

(6) a. *Il reste une fenêtre d'éclairée.*

b. *Cet ivrogne n'a jamais vu un verre de vide.*

(7) a. **J'ai carressé quelques cheveux de secs.*

b. **Nous avons soigné un enfant de malade.*

선행연구들은 이 서술어 분포제약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우선, Azoulay-Vicent (1985)은, (C) 유형에 <de + AP>가 분포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May (1977)의 양화사 인상에 관한 다음 가설에 입각한다.

양화사는 논리형식부 *Forme Logique*에서 인상을 하고 원래 자리에 변수 *variable*를 남기며 이 변수는 그 값이 정해지는 변역 *domaine de la variation*을 갖는다.

Azoulay-Vicent (1985)은 (C) 유형 구문의 직접목적어로는 전형적으로 수량명사구가 오고 이 명사구는 양화사의 특성을 보여서, 논리형식부에서 인상한 후 변수를 남기며 이 변수는 번역으로 <de + AP>를 갖는다고 분석한다. 그렇지만 이 분석은 (6) 구문에 나타나 있는 <de + AP>가 왜 (7) 구문에는 나타나지 않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분석에 따르면, (7) 구문도 직접목적어로 수량명사구가 분포한 이상, <de + AP>를 허용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즉 이 분석은 (7)과 같은 비문을 걸러내는 적절한 장치를 지니지 않는다. 이 분석의 또 다른 문제점은 Brunot (1936), Peeters (1998)가 지적한 대로, (C) 유형 구문의 직접목적어로 수량명사구가 아닌 명사구도 오는 것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den Dikken & al. (2004)도 동일한 문제를 지닌다. 이 연구에 의하면, (C) 유형의 <de + AP>는 선행명사구와 소절(SC)을 구성한다. 그래서 (5a)의 (C) 유형 구문은 아래 (8a)의 심층구조를 지닌다. 그리고 이 (8a) 심층구조는 파생과정에서 (8b) 구조로 바뀐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de + AP>의 *de*를 Moro (1977)의 술어인상을 유발하는 계사로 보기 때문이다.¹⁴⁾ 이렇게 (8a)는 (8b)의 소절 술어가 인상된 구조로 바뀐다. 이후 소절 내의 양화명사구(= *une place*)와 *de*는 각각 양화사구(QP)의 지정사(SPEC)와 핵 자리로 이동하여, 최종적으로 (8c)와 같은 표층구조에 이른다.

- (8) (= (5a)) a. Il y a [FP [de [SC [NP *une place*] [AP *libre*] SC]]].
 b. Il y a [FP *libre*_i [de [SC [NP *une place*] [AP *t*_i]]]].
 c. Il y a [QP *une place*_i [de_k [FP *libre*_i [t_k [SC *t*_i *t*_i]]]]].

14) den Dikken & al. (2004)은 *de*가 술어인상을 유발하는 계사인 근거로 다음 예문의 질적 분리 *dislocation qualitative* 현상을 제시한다.

(예) a. L'imbécile de Paul b. Le bijou de l'île

이 연구는 위 (예)의 주술관계의 도치가 바로 *de*가 술어인상을 유발하는 계사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이 분석도 왜 이 분석이 (6) 구문에는 적용되지만 (7) 구문에는 적용되지 않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즉 (7)의 경우는 왜 양화명사구가 <de + AP>의 AP와 함께 소절을 구성하여 (8)의 일련의 파생과정을 거쳐 (8c)와 같은 표층 형태로 도출되지 않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Hulk (1996), Hulk & al. (1994), Kupferman (1994a, 1994b)의 문제도 동일하다. 이 연구들은 (C) 유형 구문에서 선행명사구와 <de + AP>는 *de*를 핵으로 하는 양화사 소절을 이룬다고 분석하지만 왜 이 분석이 (7) 구문에 적용될 수 없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Azoulay-Vicente (1985), Kupferman (1980), Peeters (1998)는 (C) 유형 구문이 (9) 구조를 이루어 <de + AP>와 선행명사구가 별개 성분을 구성한다고 분석한다. 즉 (9)의 (C) 유형 구문에서 비인칭동사 *il y a*는 이항 술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들은 여타 구문에서는 1항 술어인 *il y a*가 (C) 유형 구문에서 2항 술어로 쓰이는 이유와 다른 많은 동사들이 <de + AP> 논항을 하나 더 가지면서 (C) 유형 구문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

(9) *Il y a* [_{NP} *une place*] [_{PP} *de libre*].

또 Kayne (1994), Lagae (1994)는 (C) 유형에서 <de + AP>와 선행명사구가 명사구 성격의 소절을 구성한다고 했지만 왜 한정된 동사들만이 이 명사성 소절을 직접목적어로 취하는지 밝히지 못했고 Furukawa (1989; 1996)는 (C) 유형에서 선행명사구가 <de + AP>와 소절을 구성하며 2차 주술관계를 맺는다고 보았으나 역시 제한된 동사들만이 이런 2차 주술관계를 맺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C) 유형 구문의 동사 분포제약에 대해 적

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 (C) 유형 구문의 형용사 분포제약에 대한 설명 부재

(C) 유형은 <de + AP>에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로서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만 올 수 있다.¹⁵⁾ 그렇지만 선행연구들은 이런 제약이 (C) 유형 <de + AP>에 존재한다고만 기술할 뿐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Peeters (1998)가 유일하게 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

그는 (C) 유형 구문에 제한성 *restrictivité*과 대조성 *contrastivité*이라는 의미적 개념이 구문의 적합성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형용사 제약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나 Peeters (1998)를 살펴보면, 이 두 개념은 구문 전체 의미에 작용하는 구문 적합성 조건이지 형용사 분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조건은 아니다. 게다가 이 조건은 직관적 성격의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3) (C) 유형의 <de + AP>를 구성하는 *de*의 통사적 행태에 대한 설명 부재

선행연구들은 (C) 유형 <de + AP>의 *de*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이 *de*가 형용사(구)만 수반하는지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de + AP>가 선행명사구와 소절을 구성한다는 den Dikken & al. (2004), Furukawa (1989, 1996), Hulk (1996), Hulk & al. (1994), Kupferman (1994a, 1994b), Lagae (1994)는 <de + AP>가 이 소

15) Azoulay-Vicent (1985: 27); Kupferman (1980: 822-826); Peeters (1998: 136). Peeters (1998)는 이 형용사 분포제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La contrainte sur l’adjectif. Celui-ci doit exprimer un état transitoire et non une propriété ou une qualité inhérente à l’objet qualifié. ...”

절에서 주어 또는 술어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de + AP>를 주어나 술어, 어느 것으로 분석을 하든 <de + AP>의 AP (형용사구) 대신 명사(구)가 분포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 *de*를 전치사로 분석하는 Azoulay-Vicent (1985), Kupferman (1980), Lagae (1994)¹⁶, Peeters (1998)도 왜 이 전치사가 명사구를 보어로 취하지 않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Huot (1981), Kayne (1994), Milner (1978)은 *de*를 보문소로 분석하지만 이 보문소가 인도하는 절 속에 오직 형용사(구)만 분포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한다.

4) (C) 유형 구문의 통사구조 분석

선행연구들은 (C) 유형 구문구조에 대해 서로 다른 분석을 제시하여 이 구문구조는 여전히 쟁점을 이룬다. 선행연구들은 <de + AP>가 선행명사구와 통합되어 단일 문요소를 구성하느냐 아니면 서로 별개 문요소를 구성하느냐에 있어 견해가 갈린다. 또 <de + AP>와 선행명사구가 한 문요소를 구성한다면 그것이 소절이냐 아니냐에 있어서도 분석을 달리한다. 마지막으로 <de + AP>와 선행명사구가 소절을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소절의 범주적 성격에 관해서는 생각이 또 갈린다.

① Azoulay-Vicente (1985), Kupferman (1980), Peeters (1998)는 <de + AP>와 선행명사구가 별개 문요소를 구성한다고 분석한다. *Il y a* [_{NP} *une place*] [_{PP} *de libre*].

16) Lagae (1994)는 <de + AP>가 선행명사구와 함께 소절을 구성한다고 봄과 동시에 *de*는 전치사라고 주장한다.

② Huot (1981), Milner (1978)은 <de + AP>와 선행명사구가 하나의 명사구를 구성하며, <de + AP>는 선행명사구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라고 분석한다. Il y a [_{NP} [_{NP} une place] [_{CP} de libre] _{NP}].

③ Hulk (1996), Kupferman (1994a; 1994b)는 <de + AP>와 선행명사구는 양화사구의 성격을 지닌 소절을 구성한다고 분석한다. Il y a [_{QP} une place de libre].

④ den Dikken & al. (2004), Kayne (1994), Lagae (1994)는 <de + AP>와 선행명사구가 명사구 성격의 소절을 구성한다고 분석한다. Il y a [_{NP} une place de libre].

⑤ Furukawa (1989; 1996)는 선행명사구가 <de + AP>와 함께 소절을 구성한다고 분석하지만 이 소절의 범주적 성격은 밝히지 않았다. [_{S1} Il y a <_{S2} une place _{S1}] de libre _{S2}>.

IV. (C) 유형 구문 분석

이 연구는 (C) 유형 구문에 대해,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문제점 및 쟁점을 해결하는 다음 분석을 제시하고 이를 정당화한다. 이 연구는 <de + AP>를 *de*는 전치사이고 AP는 소절 구성을 이루면서 *de*의 보어 기능을 하며 또 <de + AP>는 선행명사구와 별개 문요소를 이루어 (1a)의 구조를 이룬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 의하면 (C) 유형 구문은 (1b)와 같이 분석된다.

- (1) a. [NP] [PP (= de + AP)]
 b. Il y a [_{NP} une place] [_{PP} de sc[libre]].

이 연구는 이런 분석의 논거로 다음 관찰 사실을 제시한다. 첫째, 선행명사구와 <de + AP>는 (2)와 같이 주어, 전치사의 보어, 분열문의 초점 자리에 함께 오지 못한다. 이는 이들이 하나의 문장성분을 이루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 (2) a. *Une place de libre a été trouvée au premier rang.
 b. *J'ai parlé avec une personne de malade.
 c. *C'est une place de libre que j'ai trouvée.

둘째, 선행명사구와 <de + AP> 연쇄 뒤에는 전치사구나 제한적 관계절이 올 수 없다. 이 역시 선행명사구와 <de + AP>가 한 문장성분을 구성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3) a. *Il y a une chaise de libre en plastique.
 b. *J'ai trouvé un enfant de malade qui jouait au tennis.

그렇지만 선행명사구와 <de + AP>가 일견 한 문장성분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다음 두 경우가 존재한다. 그것은 (4)처럼, 전치사 *avec*의 보어로 이 두 요소가 함께 오는 경우와 (5)처럼, 지시대명사 *ce*나 *ça*로 이 두 요소가 함께 대리되는 경우이다.¹⁷⁾

- (4) a. Avec une main de libre, je pourrai faire cela.
 b. Avec trois guides de malades, ce serait difficile de continuer le voyage.
 (5) a. Trois élèves de malades, c'est embêtant.
 b. Deux chambres de libres, ça m'étonnerait.

17) 이는 Lagae (1994)에서 (C) 유형 구문의 선행명사구와 <de + AP>가 하나의 문장성분을 구성하는 증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4)의 *avec* 전치사구는 Ruwet (1978)가 제시하는 (7)과 같은 절대구문 *construction absolue* 구성의 전치사구로서 (6)의 구조를 이룬다. 따라서 선행명사구와 <de + AP>는 여기서도 한 문장단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6) (= (4a)) [PP [P avec] [NP une main] [PP de libre]]

(7) a. [PP [P Avec] [NP Marie] [PP pour guide]], nous n'avons pas pu aller plus loin.

b. Nous avons visité Florence [PP [P avec] [NP Marie] [PP pour guide]].

(4)의 전치사구를 (7)의 전치사구와 같은 절대구문 구성이라고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4a)와 (7)의 전치사구는 공히 전치사구 내 명사구 직후에 수식절이 오는 것을 허용한다.

(8) a. Avec une main qui est saine de libre, je pourrai faire cela.

b. Avec Marie qui est professionnelle pour guide, nous n'avons pas pu aller plus loin.

둘째, (4a)의 전치사구 내 명사구와 <de + AP>는 (7a)의 절대구문 구성 전치사구 내 명사구 자리에 함께 나타날 수 없다.

(9) *Avec une personne de malade pour guide, nous n'avons pas pu aller plus loin.

이상의 증거는 (4)의 *avec* 전치사구가 (6)의 절대구문 구성을 이루고 따라서 (C) 유형 구문의 선행명사구와 <de + AP>는 전치사구 *avec*의 목적으로 분포할 때도 한 문장성분이 아닌 별개 성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5)의 행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절대구문 구성 전치사구의 보어로 오는 두 요소들도 보이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선행명사구와 <de + AP>가 한 문장성분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10) a. Avec l'étoile du berger pour guide, le voyage sera risqué.
 ⇒ L'étoile du berger pour guide, c'est pas évident du tout.
 b. Avec ta mère au syndicat, tu ne pourras plus vivre tranquillement.
 ⇒ Ta mère au syndicat, c'est pas mal.

다음으로 (C) 유형 구문에 분포하는 동사가 한정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연구는 그 이유를 정보구조에 관한 논의를 통해 설명한다. 프랑스어 구문은 'X-가 있다'의 존재 진술 구문과 'X-는 Y-이다/하다'의 술어화 진술 구문으로 이분된다. 존재 진술 구문은 주제 기능을 하는 문요소가 없는데 반해 술어화 진술 구문은 주어가 그 구문의 무표적 주제이다. (Simons 2004)¹⁸⁾

그런데 (C) 유형 구문이 대조적 주제로 기능하는 <de + AP>를 용인하는 이유는, (11)과 같은 (C) 유형 구문들이 존재 진술 구문이어서 주제어를 따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11) a. Voici une place de libre.
 b. Il reste une fenêtre d'éclairée.
 c. Il y a deux pizzas de chaudes.
 d. C'est un monsieur de très distingué.

(11) 구문은 <de + AP>를 빼도 존재 진술 구문으로서 용인되는 구문이고 이때 이 구문은 주제가 없는 구문이다. 이 구문은 원래 주

18) 술어화 진술 구문에서, 한국어와 달리, 단문 구조 안에 주제 표지가 형태적으로 존재하는 않는 프랑스어는 주제어를 구문에 별도로 첨가하지 않는 한, 주어가 주제 기능도 함께 한다. 따라서 프랑스어는 주어가 구문의 무표적 주제이다.

제가 없기 때문에 대조적 주제로 기능하는 <de + AP>를 용인하여 (11)의 (C) 유형 구문을 이루었다. 반면, (C) 유형 구문을 이루지 못하는 동사구문들은 모두 술어화 진술 구문이어서 구문의 주어가 이미 주제로 기능하므로 또 다른 주제어 <de + AP>를 용인할 수 없다. 만약 이 구문들이 <de + AP>를 갖는다면, 두 개의 주제를 한 구문 안에 갖게 되는데 하나의 단문은 두 주제어를 용인하지 않는다. (Lambrecht 1994)

그런데 이 같은 분석에 일견 반례를 구성하는 *voir* 등의 지각동사와 *avoir* 등의 소유동사의 (C) 유형 구문이 있다.

- (12) a. Les détectives ont trouvé deux hommes de blessés.
 b. Cet ivrogne n'a jamais vu un verre de vide.

지각동사구문은 원래 술어화 진술 구문으로서 주어가 구문의 주제로 기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의 두 구문은 또 다른 주제 <de + AP>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구문들은 잘 살펴보면 의미적으로 다음과 같은 복문 구조를 이룬다.

- (13) a. “Les détectives ont trouvé [qu'il y a deux hommes de blessés].”
 b. “Cet ivrogne n'a jamais vu [qu'il y a un verre de vide].”

즉 이 구문들은 의미적으로, <de + AP>가 내포문의 주제로, 주어가 주절의 주제로 각각 기능한다. 실제로 복문은 주절과 종속절이 각각 주제를 지닐 수 있다. (13)의 지각동사구문은 통사적 복문은 아니지만 개념적으로는 복문이다. 정보구조에서는 통사적 복문과 의미적 복문이 동등하게 기능하여, 이 구문들에 <de + AP>와 주어라는 두 주제의 공존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은 소유동사구문이다. 소유동사구문도 술어화 진술 구문으로

서 주어가 주제로 기능하지만 (14)의 두 소유동사구문은 또 다른 주제 <de + AP>를 지니고 있다.

- (14) a. J'ai un enfant de malade dans mon école.
b. Il a un bras de cassé.

그렇지만 (14a-b)의 (C) 유형 *avoir* 동사구문은 소유 관련 진술이 기보다는 “우리 학교에 아픈 아이는 한 명이 있다.”, “그가 두 팔 중 한 팔을 다쳤다.”라는 의미를 각각 지니면서 하나의 사건(또는 일시적 상태)을 제시하는 제시문적 성격이 지닌다. 제시문이란 주제가 없는 존재 진술 구문이다. 따라서 이 구문들은 주어와 주제를 가지 않아서 <de + AP> 주제어를 용인한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C) 유형 구문은, <de + AP> 외에 또 다른 주제어가 같은 구문 내에 없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극히 한정된 동사구문에만 허용된다. 실제로 아래 (C) 유형 구문은 비문인데 이들은 주어와 구문의 주제로 기능하는 술어화 진술 구문이다.

- (15) a. *J'ai mangé deux pizzas de chaudes.
b. *Il a cherché une place de libre.

다음으로 (C) 유형의 <de + AP>에 서술적 용법 형용사 중 일시적 상태의 형용사만 올 수 있지, 항구적 속성의 형용사는 올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연구는 이 분포제약을 (C) 유형 구문의 제시문적 성격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C) 유형 구문은 ‘X-가 있다’의 존재 진술 구문으로서 발화상황 속에 하나의 사건을 제시하는 제시문의 성격을 지닌다.¹⁹⁾ 제시문이

19) Furukawa (1989; 1996)와 Peeters (1998)도 (C) 유형 구문들의 의미적 성격을 이와 유사하게 보았다.

란 원래, (16-18a)처럼, 시공간에 유한하게 위치하는 사건이나 존재를 제시하는 데에 사용되지, (16-18b)처럼, 시작점과 끝점이 없어서, 시공간에 위치시킬 수 없는 항구적 명제를 제시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 (16) a. Il y a (un homme + un accident qui se passe au carrefour).
b. *Il y a que Marie est intelligente.

- (17) a. Je vois deux hommes qui se battent.
b. *Je vois Marie qui est intelligente.

- (18) a. Voilà (un café + Marie qui arrive + Marie qui est de nouveau pressée).
b. *Voilà Marie qui est (intelligent + belle).

그런데 (C) 유형 구문은, 아래 (19a)처럼, <de + AP>에 일시적 상태의 형용사가 올 경우, 이 형용사가 선행명사구와 함께, 시공간적으로 유한하게 한정되는 하나의 사건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19b)처럼, 항구적 속성의 형용사가 오면, 이 형용사는 선행명사구와 함께 하나의 항구적 명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C) 유형 구문은 제시문적 성격을 지녀서, 시공간 안에 위치시킬 수 없는 항구적 명제를 제시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로 (C) 유형 구문은 이 같은 형용사 분포제약을 지닌다.

- (19) a. Voilà un soldat de (tué + blessé + fatigué).
b. *Voilà un soldat de (brave + brun + grand).

이제 (C) 유형 구문 분석에서 <de + AP>가 왜 대조적 주제의 해석을 부여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남아 있다. 즉 이 <de + AP>는

정체가 무엇이기에 이런 정보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선행연구의 언급이 있다. Azoulay-Vicent (1985)와 Wagner & Pinchon (1962)은 <de + AP>가 아래 (20)의 <de + NP/AP> 형태의 문두 주제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 (20) a. D'ami véritable, je n'ai que ton frère.
 b. D'amour éternel, nous n'avons connu que celui de Dieu.
 c. De nouveau, je n'ai relevé que cette idée.

그러나 두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de + AP>가 이 문두 주제어와 관련을 맺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 두 문요소 간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통해 <de + AP>가 왜 대조적 주제의 해석을 부여 받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문두 주제어를 지닌 구문들의 정보구조를 살펴보자. (20)의 문두 주제어를 지닌 구문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정보구조를 갖고 있다.

- (21) [s' TOPIC[de + NP/AP] COMMENT[s]s]s'

이 구문들에서, 문두 주제어는 (비대조적) 주제로, 후행절은 진술로 기능한다. 또 후행절에서 문두 주제어와 의미적 관계를 맺는 논항은 (20)에서 보는 것처럼, *ne ... que*에 의해 반드시 초점을 받아야 한다. (Barbaud 1976)

이 문두 주제어와 대조적 주제어로 기능하는 (C) 유형의 <de + AP>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두 주제어가 완결된 구문 앞에 덧붙여 그 구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반면 대조적 주제어 <de + AP>는 (22)처럼, 단문 구문의 한 성분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22) [s [de + AP]]s

이 연구는 이런 통사적 위상의 차이가 문두 주제어는 비대조적 주제로, <de + AP>는 대조적 주제로 기능하게 하는 것일 뿐,²⁰⁾ 두 문요소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닌 요소라고 판단한다. 이 판단의 근거는 다음 5절에서 제시한다. 그러므로 (C) 유형 구문의 <de + AP>가 왜 대조적 주제의 해석을 부여 받는지에 대한 최종 설명은 다음 5절에서 한다.

V. (C) 유형 구문 <de + AP>의 분석

5절에서는 <de + AP>를 구성하는 *de*의 통사적 성격 및 *de*가 형용사(구)만 수반하는 사실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대조적 주제어 <de + AP>가 문두 주제어 <de + NP/AP>뿐 아니라 아래 (1)의 *traiter* 등의 동사구문의 *de* 전치사구와도 원래 같은 통사 구성을 지닌 동일 문요소임을 보인다.²¹⁾

먼저, (1a)의 *traiter*, *qualifier* 동사구문을 보자. 이 구문에 나타나는 전치사 *de*는 목적으로 형용사, 명사, 부정법절을 갖는다. 이 *de*가 전치사인 증거는, (1b)와 같이, 이 *de*가 보어와 함께 중성대명사 *en*으로 대리된다는 사실이다.

- (1) a. Il est (traité + qualifié) (de riche + de crime + d'être imparfait).
 ⇒ b. Il en est (traité + qualifié).

20) 사실 문두 주제어와 <de + AP>는 통사적 위상의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니고 문요소의 내부 구조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5절에서 다룬다.

21) Wagner & Pinchon (1962)도 이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Wagner & Pinchon (1962)은 이 세 문요소가 어떻게 해서 같은 성격의 문요소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

이 전치사 *de*의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de*가 부정법절 외에 소절도 목적으로 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²²⁾ 즉 우리는 (1a)의 *de* 전치사구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2) *Il_i est (traité + qualifié) [de [PRO_i (riche + crime + être imparfait)]].*

이 연구는 이 전치사 *de*가 “~로” 정도의 해석의미를 지닌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2)의 분석을 반영하여 (1a)의 첫 구문을 해석하면 “그는 [부자인 것으로] (취급된다 + 간주된다).”이다.

이 연구는 문두 주제어 <*de* + NP/AP>의 *de*와 대조적 주제어 <*de* + AP>의 *de*도 (1-2)의 전치사 *de*와 같은 성격을 지닌 전치사라고 보고자 한다. 우선 문두 주제어 구문을 보자.

(3) a. *D’ami véritable, je ne connais que ton frère.*
 b. *De nouveau, je n’ai relevé que cette idée.*

<*de* + NP/AP>는 [*de* [PRO_{arb} NP/AP]] 구조로서, *de*가 소절 목적어를 지닌 것으로 분석한다. 이 분석에 입각하여 (3) 구문의 구조를 제시하면 (4)와 같다. 그리고 제시한 구문구조에 따라, (4a)의 문두 주제어 구문을 해석하면 “진정한 친구인 것으로는, 내가 네 동생밖에 모른다.”이다.

(4) a. [*D’* [PRO_{arb} ami véritable]], *je ne connais que ton frère.*
 b. [*De* [PRO_{arb} nouveau]], *je n’ai relevé que cette idée.*

22) Kayne (1994: 101-115)도 이 *de*를 전치사성 보문소 *complémenteur prépositionnel*라 규정짓고 이 *de*가 인도하는 절로는 시제절, 부정법절 외에 소절이 있다고 분석한다.

한편, 대조적 주제어 <de + AP>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파생된다고 분석한다.

- (5) a. [de [PRO AP/NP]]
 ⇒ b. [de [_{IP} AP_j /*NP_j [PRO t_j]]]

대조적 주제어 <de + AP>도 *traïter* 구문의 *de* 전치사구나 문두 주제어와 동일한 [de [PRO AP/NP]] 구조에서 출발하지만 파생 과정을 달리한다.²³⁾ <de + AP>는 파생 과정에서 소절 술어 AP/NP가 주어 자리(IP의 SPEC 자리)로 인상한 (5b) 구조를 이룬다.²⁴⁾

문두 주제어와 달리 <de + AP>는 왜 소절 술어가 주어 자리로 인상하는가? 만약 인상을 하지 않으면 AP/NP는 소절 술어 위치에서 주제/진술의 정보기능 중 진술 기능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de + AP>는 진술이 아닌 (대조적) 주제의 기능을 한다. 그렇다면 [de + AP]는 어떻게 주제 기능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소절 술어 위치에 있던 AP/NP가 주제어 기능을 하기 위해, 무표적 주제 자리인 주어 자리로 인상을 하기 때문이다.²⁵⁾

그러나 문두 주제어는 이런 술어 인상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두 주제어가 점유하는 문두의 자리는 프랑스어의 고유한 (비대조적) 주제어 자리이기 때문이다. 즉 이 자리에 오는 문요소는 주제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문두 주제어는 주제 기능을 얻기 위해 술어

23) 여기서 대조적 주제어 <de + AP>와 문두 주제어가 *traïter* 구문의 *de* 전치사구에 대해 지니는 차이점을 언급해야 한다. 전자의 두 문요소는 후자와 달리, 부정법 절이 전치사의 보어 자리에 올 수 없고 부정대명사 *en* 대리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전자가 후자와 달리 주제어 기능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현 단계에서는 확실한 이유를 제시하기 어렵다.

24) 이 구조는 Kayne (1994)이 제시한 구조를 받아들인 것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25) den Dikken & al. (2004)과 Kayne (1994)도 (C) 유형 구문의 [de + AP] 분석에서 이와 유사한 술어인상을 제안했다.

인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다시 대조적 주제어 <de + AP>의 술어인상에 대한 논의로 돌아간다. (5b)에서 보는 것처럼, 대조적 주제어의 술어인상 중 NP 인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래 (6)의 문두 주제어가 보여 주듯이, 문두 주제어를 구성하는 NP는 반드시 비지시적 성격을 지닌다.

- (6) a. (D'ami véritable + *De l'ami véritable), je n'ai que ton frère.
 b. (D'amour éternel + *De l'amour éternel), nous n'avons connu que celui de Dieu.

이 연구는 대조적 주제어의 AP 대신 나타날 NP 역시 비지시적 성격을 지닌다고 간주한다. 그런데 아래 (7b)의 도치계사문이 보여 주듯이, 주어 자리로 인상되는 술어 NP는 반드시 지시적 성격을 지닌다. 이는 프랑스어 주어의 지니는 한정성 제약에 기인한 것이다.

- (7) a. Paul est [un vrai imbécile]_{non référentiel/référentiel}. [표준계사문]
 b. [Le vrai imbécile]_{*non référentiel/référentiel} est Paul. [도치계사문]
 c. *([Un vrai imbécile]_{non référentiel} +[vrai imbécile]_{non référentiel}) est Paul. [도치계사문]

따라서 <de + AP/NP> 주제어의 소절 술어 NP도 주어 자리로 인상되려면 지시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두 주제어나 대조적 주제어를 구성하는 술어 NP는 비지시적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대조적 주제어에서 NP 술어의 인상은 용인되지 않는다.

반면에 비지시적 성격을 지니는 AP는 아래 (8b)의 도치계사문이 보여 주듯이 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프랑스어 주어의 지니는 한정성 제약이 작용하지 않는다.

- (8) a. La maison est belle, très belle. [표준계사문]
 b. Belle, très belle est la maison. [도치계사문]

이상의 이유로, 대조적 주제어 <de + AP>에는 AP 대신 NP가 오지 못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C) 유형 구문이 (9)와 같은 구조를 지닌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제시한 분석을 반영하여 (9) 구문을 해석하면 “비어 있는 것으로는 자리가 하나 있다.”이다.

- (9) Il y a [_{NP} une place] [_{PP} de [_{libre}_j [_{PRO_{arb}} t_j]]].

VI. (A), (B) 유형 구문의 분석

이제는 (A-B) 유형 구문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A-B) 유형의 대조적 주제어 <de + AP>도 (C) 유형 구문의 <de + AP>와 같은 성격의 문요소이며 따라서 (C) 유형 <de + AP> 분석은 (A-B) 유형 <de + AP> 분석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A-B) 유형 구문의 <de + AP>도 *de*는 전치사이고 AP는 *de*의 보어로, 최초 [PRO + AP]의 소절 구성에서 술어인상이 일어나 소절 술어 AP가 주어 자리로 인상한 구조를 지닌다고 보고자 한다.

단 (A-B) 유형은 (C) 유형과 달리 <de + AP>가 선행명사구와 함께 하나의 명사구를 구성하여 다음 구조를 이루고 있다. [_{NP} [_{NP}] [_{PP} de sc[**PRO** AP]]].

- (1) a. J'ai vu [_{NP} [_{NP} quelque chose][_{PP} de libre]]. : (A) 유형
 b. J'en ai lu [_{NP} [_{NP} deux]][_{PP} de passionnants]]. : (B) 유형

왜냐하면 (A-B) 유형은 선행명사구와 <de + AP>가 아래와 같이 주어, 전치사의 목적어, 분열문의 초점 자리에 함께 옴으로써 한 문

장성분으로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2) (A) 유형 구문 :

- a. Rien d'extraordinaire n'est arrivé.
- b. Il a dit cela à qui d'important?

(3) (B) 유형 구문 :

- a. Ma seule main de libre ne voulait plus s'en détacher.
- b. ?Ce n'est qu'une seule place de libre qui nous reste.

또 (A-B) 유형은 선행명사구와 <de + AP> 연쇄 뒤에 전치사구나 제한적 관계절이 올 수 있다. 이 역시 선행명사구와 <de + AP>가 한 문장성분을 구성함을 보여 준다.

- (4) a. C'est quelque chose de nouveau avec ses hauts et ses bas.
- b. J'ai vu quelque chose d'inconnu qui ne devrait pas exister selon la science.
- c. J'en ai une de libre qui ne coûte pas chère.

그러므로 이 연구는 (A-B) 유형 구문이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닌다고 분석한다.

- (5) (A) 유형 : Tu fais [_{NP} [_{NP} quoi][_{PP} d'[intéressant_{tj} [_{PRO_{arb}} t_j]]]]?
- (B) 유형 : Je n'ai lu que [_{NP} [_{NP} le livre [_{PP} d'[intéressant_{tj} [_{PRO_{arb}} t_j]]]].

그런데 (C) 유형 구문이 분포 동사가 극히 한정되고 <de + AP>의 형용사 분포에 제약이 있는데 반해 (A-B) 유형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정보구조에 관한 논의로 설명된다.

(A-B) 유형은 (C) 유형과 달리 <de + AP>가 구문의 한 성분이

아니고 구문의 한 성분인 명사구의 구성성분이다. 따라서 (A-B) 유형의 <de + AP>가 대조적 주제(= (6)의 **Topic②**)로 작용하는 범위는 구문 전체가 아니라 <de + AP>가 속한 NP (= (6)의 **NP②**)의 내부 영역(= (6)의 음영 부분)이다.

그러므로 (A-B) 유형의 <de + AP>는 명사구 내부의 주제로 기능하며 구문 차원에서 존재하는 별도의 주제어(= **Topic①**)의 존재 유무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로 (A-B) 유형 구문에는 <de + AP>가 출현함에 있어 분포 동사나 구문 형식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6) Topic①[NP] Comment①[V NP②[Comment②[NP] Topic②[PP<de + AP>]]]

또 구문이 지닌 제시문적 성격이 <de + AP>의 형용사 분포에 제약을 가하는 (C) 유형과 달리 (A-B) 유형은 구문 형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문이 <de + AP>의 형용사 분포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A-B) 유형 <de + AP>의 형용사 분포에는 (C) 유형과 같은 제약이 없다.

VII. 결론

이 연구는 프랑스어의 <de + AP> 문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첫째, (C) 유형의 <de + AP>는 해당 구문의 독립된 문장성분이지만 (A-B) 유형의 <de + AP>는 선행명사구와 함께 명사구를 구성하여 해당 구문의 독립된 문장성분이 아니다.

둘째, <de + AP>는 *traiter* 동사구문의 *de* 전치사구나 문두 주제

어 <de + AP/NP>와 동일한 성격의 문요소로서 전치사 *de*와 전치사의 보어인 소절로 구성된 구조를 지닌다. 단 <de + AP>의 소절은 술어인상이 일어난 구조라는 점에서는 문두 주제어나 *traiter* 구문의 *de* 전치사구의 소절과 차이가 있다.

또 이 연구는 <de + AP>에 대한 이상의 분석 과정에서 <de + AP>에 관한 미해결 쟁점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을 제시하였다.

- 1) <de + AP>의 *de*는 왜 명사구는 수반하지 못하고 형용사구만 수반하는가? 그것은 <de + AP>가 술어인상이 일어난 구조이고 술어 형용사구(AP)와 달리, 술어 명사구는 해당 구조에서 인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2) <de + AP>가 왜 대조적 주제의 의미를 지니는가? 그것은 <de + AP>가 술어인상을 겪어 술어 AP가 무표적 주제 자리인 소절의 주어 자리를 점유하기 때문이다.
- 3) 왜 (C) 유형 <de + AP>는 한정된 동사부류의 구문에만 나타나는데 반해 (A-B) 유형 <de + AP>의 분포에는 동일한 제약이 없는가? 명사구 내부의 주제로 기능하는 (A-B) 유형 <de + AP>는 구문 차원의 주제어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구문의 서술어와 구문 형식에 아무런 제약을 발휘하지 않지만 (C) 유형 <de + AP>는 구문의 주제어로 기능하여서 그 구문이 또 다른 주제어를 갖지 않도록 구문의 서술어와 구문 형식에 제약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 4) 왜 (A-B) 유형 <de + AP>와는 달리 (C) 유형 <de + AP>의 형용사는 일시적 상태 표현 형용사로 한정되는가? (C) 유형 구문이 지니는 사건제시문적 특성이 (C) 유형 <de + AP>에 반드시 일시적 상태 표현 형용사만 분포하게끔 제약을 가하는 반면 (A-B) 유형 <de + AP>의 분포에는 해당 구문이 발휘하는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Azoulay-Vincent, A. 1985. *Les tours comportant l'expression de + adjectif*, Droz.
- Barbaud, Ph. 1976. « Construction superlative et structures apparentées », *Linguistic Analysis* 2-2: 125-174.
- Brunot, F. 1936. *La pensée et la langue*, Masson.
- Buring, D. 2000, « On D-trees, Beans and B-accents », Manuscript, UCLA.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Praeger Paperback.
- Clédat, L. 1901, « La préposition et l'article partitif », *Revue de Philologie française et romane* XV: 81-131.
- Damourette, J. & Pichon, E. 1952, *Des mots à la pensée. Essai de grammaire de la langue française*, D'Artrey.
- den Dikken, M & al. 2004, « Complex noun phrases and Linkers », *Syntax* 7-1: 1-54.
- Englebert. A. 1992, *Le « petit mot » DE, Étude de sémantique historique*, Droz.
- Furukawa. N. 1989, « À propos de la construction *il y a une place de libre* », *Travaux de Linguistique* 18: 5-30.
- Furukawa. N. 1996, *Grammaire de la prédication seconde: forme, sens et contraintes*, Duculot.
- Gross, M. 1976, *Méthodes en syntaxe*. Hermann.
- Grevisse, M. 1980, *Le Bon Usage* (onzième édition), Duculot.
- Huot, H. 1981, *Constructions infinitives du français: Le subordonnant*

DE. Droz.

- Hulk, A. 1996, «L'« autre » DE : une tête quantificationnelle?», *Langue française* 109: 44-59.
- Hulk, A. & Verheugd, E. 1994, « Accord et opérateurs nuls dans les projections adjectivales », *Revue québécoise de linguistique* 23-2: 17-45.
- Kayne, R. 1981, « On Certain Differences between French and English », *Linguistic Inquiry* 12-3: 349-371.
- Kayne, R. 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The MIT Press.
- Kupferman, L. 1980, « Il y a une place de libre: Study of a construction », *Linguistics* 18: 821-848.
- Kupferman, L. 1994a, « Une assignation de cas assez exceptionnelle »,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8: 151-175.
- Kupferman, L. 1994b, « Typologie des constructions en de-adjectif »,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philologie romanes* 32: 85-95.
- Kupferman, L. 1996, « Un bien grand mot : de. De la préposition au mode de quantification », *Langue française* 109: 3-8.
- Lagae, V. 1994, *La prédication interne au groupe nominal. Les constructions du type « il y en a une de libre »*,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Catholique de Leuven.
- Lagae, V. 1995. « Deux constructions en de + adjectif », Ms., Université de Valenciennes & Université de Paris 3.
- Lagae, V. 1998, *Les constructions en 'de' + adjectif : typologie et analyse*, Presses universitaire de Louvain.
- Lagae V. 2008, « Les participes passés et la prédication seconde : les constructions en DE du type elle a un article de terminée », *Travaux de Linguistique* 57: 89-104.

- Lambrecht, K.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 Bidois, G. & Le Bidois, R. 1967, *Syntax du français moderne*, A. Picard.
- Martinon, Ph. 1927, *Comment on parle en français*, Larousse.
- May, R. C. 1977, *The Grammar of Quantification*, PhD diss., MIT.
- Milner, J.-Cl. 1976, *Quelques opérations de détermination en français: syntaxe et interprétation*, Thèse de Doctorat d'État, Université de Paris VII.
- Milner, J.-Cl. 1978, *De la syntaxe à l'interprétation*, Seuil.
- Moro, A. 1997. *The raising of predicates: Predicative noun phrases and the theory of clause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eters, B. 1998. «Les tours du type *Il y a une place de libre* : Presentativité, contrastivité, restrictivité», *Revue de Sémantique et Pragmatique* 5: 133-151.
- Simons, P. 2004, Judging Correctly: Brentano and the Reform of Elementary Logic. In D, Jacquette,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Brentano*,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gner, R.-L. & Pinchon. J. 1962, *Grammaire du français classique et moderne*, Hachette.

구기현, 2011, 프랑스어 전치사 사전, 제이엔씨.

« Résumé »

Étude sur la construction du type “*Il y a une place de libre.*” : analyse unifiée des trois types de constituant phrastique [de + AP]

KIM Jong Myung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Cette présente étude porte sur un constituant phrastique formé de deux éléments : un petit mot mystérieux *de* suivi d'un syntagme adjectival (= AP). (ce constituant ci-après dénommé sous forme abrégée « de + AP »).

Ce qu'il faut dire, avant tout, à propos du constituant « de + AP » est qu'il se divise, d'après ses propriétés distributionnelles, en trois types, soit ceux de (A), de (B) et de (C).

Le type (A) représente « de + AP » en cooccurrence avec un pronom interrogatif, indéfini, démonstratif ou possessif. En fait, ces pronoms sont susceptibles d'accompagner « de + AP » qui le suit dans une construction où ils apparaissent. En voici quelques exemples en (1).

- (1) a. Qui connais-tu d'intelligent?
- b. Quelqu'un d'inconnu te demande.
- c. Je connais celui-ci d'intelligent.

d. Il a mangé le vôtre de délicieux.

Le type (B) désigne « de + AP » en relation avec un élément focalisé. Dans une construction ayant un élément focalisé, « de + AP » peut se présenter derrière cet élément focalisé, ce qui se voit en (2).

- (2) a. Je n'ai lu que le livre d'intéressant.
- b. Le seul garçon que j'aie de sage est Paul.
- c. C'est le livre que j'ai lu d'intéressant.
- d. J'en ai lu deux de passionnants.

Le type (C) indique « de + AP » qui se trouve dans une construction d'une petite classe verbale dont l'effectif est au nombre d'une dizaine. « de + AP » s'y maintient en relation quelconque avec un syntagme nominal qui le précède, comme on le voit en (3).

- (3) a. Il y a une place de libre.
- b. J'ai un enfant de malade.
- c. Voilà encore deux soldats de tués.
- d. J'ai trouvé deux pizzas de chaudes.

Notre étude a pour but de proposer une analyse unifiée de ces trois types de « de + AP ».

Pour ce faire, nous avons commencé par examiner « de + AP » du type (c). Et c'est au bout de son analyse que nous sommes arrivé à dire qu'il s'agit de la préposition *de* suivie d'une petite proposition (= small clause) dont le prédicat adjectival est monté

en position de sujet.

Ensuite, nous avons montré que cette analyse s'applique également aux deux autres types de <de + AP>.

Une analyse ainsi unifiée nous a permis de répondre aux questions suivantes qui restaient jusque-là irrésolues.

- 1) Quelle est le statut catégoriel du *de* de «de + AP»?
- 2) S'il s'agit d'une préposition, pourquoi la préposition *de* se permet-elle, comme complément, un syntagme adjectival mais non pas nominal?
- 3) Pourquoi «de + AP» du type (C) n'est-il accepté que par une dizaine de verbes?
- 4) Pourquoi l'adjectif apparaissant dans le type (C) se limite-t-il à dénoter un état passager mais non pas permanent, ce qui n'est pas le cas pour les deux autres types.

Nous y avons répondu de la façon suivante.

- 1) Il s'agit toujours d'une préposition.
- 2) Un syntagme nominal n'y apparaît pas au lieu d'un syntagme adjectival parce que le premier ne peut pas monter en position de sujet, cela, dû à son trait non référentiel.
- 3) Étant donné que «de + AP» du type (C) joue son rôle de topique dans une construction où il apparaît et qu'une construction dispose d'un seul topique au niveau de la construction, la construction se permettant un constituant du type (C) ne peut pas détenir d'autre topique à ce niveau. C'est à cause de cette contrainte que les prédicats verbaux susceptibles d'accepter un constituant du type (C), sont ainsi

limités.

- 4) Les constructions qui s'accommodent de « de + AP » du type (C), partagent toutes un trait sémantique. Pour elles toutes, il s'agit toujours de présenter un événement. Ainsi, leur syntagme nominal et « de + AP » qui le suit expriment conjointement un événement. Or, l'événement est, de sa propre nature, toujours passager en termes de duré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l'adjectif impliqué dans le type (C) doit dénoter un état passager. Par contre, quant aux types (A) et (B), leurs syntagme nominal et « de + AP » expriment conjointement non seulement un événement passager mais aussi un état permanent.

주제어 : 형용사, 정보구조, 초점, 주제, 대조적 주제, 일시적 상태,
항구적 상태, 문두 주제어, 절대구문

Mots-clés : adjectif, structure informationnelle, focus, topique,
topique contrastif, état passager, état permanent, élé-
ment de topique frontal, construction absolue

논문 투고일 : 2014년 10월 29일

심사 완료일 : 2014년 11월 28일

게재 확정일 : 2014년 11월 28일